

# 일하는 어머니의 취업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

## Parental Satisfaction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Working Mother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박사과정 양 연 숙

Dept. of Child, Family and Housing Studies, Kyounghee Univ.  
Doctoral Course : Yang, Yeon Suk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해석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explore the difference in parental satisfaction regarding personal/family, work,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f employment characteristics, and (2) to investigate the most effecting variables on the parental satisfaction. For this study, the working mother with children aged under 10 year were survey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aren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work time, job preference, income, the difficulty of work life. However, working mother's personal and family variable were not found as the related variable. Psychological variables were correlated with parental satisfaction. (2) Maternal role efficiency, dual role conflict, flexibility of work, marriage year, income, psychological stress, expanded family, durations of occupation, spouse support significantly predicted parental satisfaction. Psychological variables were important in parental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s.

#### I. 서론

전근대적 농업위주의 사회에서는 가정과 일터의 구분없이 남편과 부인이 생계를 공동으로 담당하였

으나 산업화 이후 직장과 일터가 분리되기 시작하고 남성은 직업역할을, 여성은 가사노동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자아실현 요구의 증가, 가족계획으로 인한 자녀양육기간의 단축,

가정기기의 과학화로 인한 가사노동의 간편화, 그리고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노동력 필요 등의 제반 조건과 맞물려 기혼 여성의 취업률은 증가하게 되었다(유영주 외, 1995). 그러나 기혼 여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역할뿐 아니라 가사 및 자녀 양육 책임까지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혼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한국여성개발원, 1986)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이 자녀양육상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취업을 포기한 이유 중에 자녀양육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고 있어 자녀양육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일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해 항상 죄책감을 갖게 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에게 시간적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두가지 상반된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반된 역할 속에서 여성은 갈등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며 이중적인 부담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한편, 결혼한 부부는 대부분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부모라는 사회적 위치에 서게 되고, 자녀에게 실제 양육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모역할이 진행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결혼보다는 부모가 되는 것이 개인으로 하여금 성인의 위치에 서게하는 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현운강·조복희, 1994). 우리 나라에서는 부모가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간주되므로 특별히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이며 부모역할 수행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은 무엇이며 부모로서 경험하는 갈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모로서의 만족감이 부모의 실제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당연시되면서도 자녀양육행동의 선행변수인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처럼 부모됨의 중요성에 대해 학자들의 관심이 주목되면서 부모됨이나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가 시행되었다(LeMaster, 1957; Goetting, 1986; Clininshaw & Guidubaldi, 1989; 조복희·현운강, 1994).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부모가 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위기에 관심을 두었으나(LeMaster,

1957),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인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주목되었다(Chilman, 1980). 최근에 들어 국내에서도 부모됨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 및 만족(원정선, 1990; 이혜란, 1984),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한 어머니의 연령별 비교(강희경, 1994),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현운강, 1994; 조복희·현운강, 1994),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부모역할만족도(양미경, 1996) 등의 연구가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근본적으로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기초로 행해진 연구들로서 본 연구 또한 그러한 인식의 바탕위에 점차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일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부모역할만족을 파악하고, 개인 및 가족특성, 직업특성 그리고 취업과 가정생활 경험을 통해 지니게 되는 심리적 특성을 취업특성이라 정의하여 이들이 부모역할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및 의의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어머니의 취업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은 어떠한가?
  - 1) 일하는 어머니의 개인·가족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은 어떠한가?
  - 2) 일하는 어머니의 직업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은 어떠한가?
  - 3) 일하는 어머니의 심리적특성과 부모역할만족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2. 일하는 어머니의 취업특성이 부모역할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개인·가족 특성과 부모역할만족

어머니 연령에 따른 부모역할만족 연구(Ragozin et al., 1982; Goetting, 1986)는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어머니의 연령이 부모역할 수행에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강희경(1994)의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 즉, 어

머니의 연령에 따른 부모역할 만족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20대 출산모 집단에 비해 고령 출산모 집단의 경우 부모역할만족도와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가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양미경(1996)의 연구에서는 40대 아버지들에 비해 30대 아버지들의 부모역할만족도가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복희·현은강(199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부모역할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이 높아진다는 결과(Cleminshaw & Guidubaldi, 1989)와 부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Steffensmeir, 1982),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과 부모역할만족도간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연구 결과(강희경, 1994; 조복희·현은강, 1994) 등 서로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에 대한 가치가 낮고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는 자신의 가치를 자녀를 통한 대리 성취로 둘 수 있다는 해석(조복희·현은강, 1994)과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는 부모역할을 긍정적으로 또는 반대로 낮은 가치에 두는 양극현상이 보인다고 분석할 수 있다(Harmner & Turner, 1990).

자녀수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를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원하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덜 느끼고(Hobbs & Wimbish, 1977), 부모역할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연구결과(Miller, 1976) 있는 반면, 자녀수와 만족감간에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결과(Keith & Schafer, 1983; 조복희·현은강, 1994)도 있다. Keith와 Schafer(1983)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일을 갖고 있는 어머니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역할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며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스트레스와 긴장을 느낀다고 하였다.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영향력을 일하는 어머니의 역할갈등과 연관시켜 연구한 연구(변자영, 1996; 안선영, 1987)에서는 결혼지속년수가 길어질수록 높은 수준의 역할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편 Russell(1974)의 연구에서는 결혼기간이 길

수록 어머니가 됨으로써 겪는 어려움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족형태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강희경(199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연령 집단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20대 출산모 집단의 경우에는 확대가족이 핵가족에 비해 부모역할만족의 정도가 높은 반면, 고령출산모 집단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자녀양육의 실제 경험이 부족한 20대 어머니들의 경우 자신 이외에 양육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족원이 있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확대가족 형태의 어머니들이 핵가족 형태의 어머니들보다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성옥(1993)의 연구에 의하면, 월수입이 낮은 집단의 경우, 많은 집단에 비해 보다 더 높은 격리불안을 나타내고 있으며, Voydanoff와 Kelly(1984)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시간부족이나 소득부적합으로 인한 역할갈등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득과 아동에 대한 격리불안 및 역할갈등과의 상호관련성이 부적인 관계임을 감안할 때 부모역할만족과 소득과의 관련성 또한 예측가능한 관계일 것이다.

## 2. 직업특성과 부모역할만족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부모로서의 역할 특히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중요시 함으로써 여성은 직장인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직업관련 특성들을 역할갈등이나 가정생활만족도 혹은 취업주부의 우울감과 연결지어 연구하여 왔다. 그 결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근무년수 및 과도한 근무시간의 요구, 융통성 없는 업무시간의 양은 직장·가정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경험하는 역할갈등과 정적인 관계를(Keith & Schafer, 1983; Voydanoff & Kelly, 1984; 변자영, 1996; 이연숙 외, 1991;

정혜정, 1985), 가정생활만족도와는 부적인 관계(Keith & Schaffer, 1983; Moen & Dempster-McClain, 1987)를 나타내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직장·가정생활에서의 높은 역할갈등 및 생활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은 결국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의 질과 그에 따른 부모역할만족의 정도를 낮추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들은 어머니의 취업유무 그 자체보다는 취업에 대한 자발성 여부가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격리불안, 역할갈등 및 부모역할만족도에 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며(Demeis, Hock, & McBride, 1986; 박성옥·양연숙·곽혜경, 1996; 조복희·현온강, 1994)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선호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성미(1991)의 연구에서는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로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직업만족도 변인을 검증하였으며, 두 변수간의 관계가 정적임을 보고하였다. 즉,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심리적 특성과 부모역할만족

일하는 어머니들에게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자녀양육, 남편과의 관계, 직업적 역할과 가정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데서 오는 이중역할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혜정(1985)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가 '자녀양육', '가정관리', '남편과의 관계'에서 역할갈등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Etaugh와 Hoffman(1974)은 어머니의 취업은 아동에 대한 적절한 대리양육,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 가정의 사회적 계층 등의 요인이 작용함으로써 어머니 자신의 인성과 부모로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성미, 1991; 재인용).

박성옥·김정훈(1995)의 연구에 의하면 탁아의 질에 대한 평가가 불만족스러울수록 직장과 가정생활을 수행하는데 대한 역할긴장감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자녀의 대리양육에 대한 만족도가 일하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는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케 한다. 이와 아울러 일을 갖게 됨으로써 겪는 어머니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이연숙 외, 1991) 줄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장경미, 19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됨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Bernard, 1974; Moore & Hofferth, 1979; Hock & Clinger, 1981; Gnezda, 1983)에서는 어머니로서의 역할능력에 대한 자신감 즉, 어머니의 역량에 대한 지각이 역할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박성옥, 1993; 재인용).

한편, 우리나라와 같은 가부장제 사회속에서 기혼 여성의 취업은 여전히 남편과의 관계 즉, 남편의 지지가 중요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남편의 정서적 지지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Keith & Schaffer, 1983; 이연숙 외, 1991; 박성옥·김정훈, 1995)에서도 남편의 지지는 여성의 사회생활에 중요한 요인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생활에서의 만족도와도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더군다나 부부중심의 가족사회에 있어서는 부부관계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하기 때문에 일하는 어머니들이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남편의 지지도는 중요한 요인이라 사료된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일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로서, 1996년 1월 22일부터 2월 19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어머니들과 초등학교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회수된 310부 가운데 부실기재된 7부를 제외한 30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1) 개인·가족특성 측정을 위한 척도 구성

일하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한 개인·가족특성 변수들로는 어머니의 연령, 학력, 결혼지속년수, 자녀수, 가족형태, 가족총소득 여섯 변수로서 단일문항으로 구성된 총 6문항이다.

### 2) 직업특성 측정을 위한 척도 구성

일하는 어머니의 직업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의 유통성은 Glass & Camarigg(1992)의 도구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홍성례(1995)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Cronbach  $\alpha = .83$ ), 직업만족도는 Janson과 Martin(1982)의 연구에서 사용된 5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Cronbach  $\alpha = .80$ ). 근무시간의 유통성·직업만족도 척도는 모두 5점 리커트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유통성과 만족도는 높아진다. 그 밖에 근무년수·근무시간·직업의 종류·직업소득·취업선택유무는 각각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심리적 특성 측정을 위한 척도 구성

일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중역할갈등은 Kopelman(1983)에 의해 제작된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한 장경미(1995)의 척도를 적용하였고(Cronbach  $\alpha = .84$ ), 어머니의 역량 지각 측정을 위한 문항 구성은 Gibaud-Wallston(1977)의 PSC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한 박성옥(1993)의 번역척도를 사용하였다(Cronbach  $\alpha = .67$ ). 또한 남편의 정서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문항들은 하현숙(1995)의 도구를 사용하고(Cronbach  $\alpha = .90$ ), 일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스트레스 척도는 Derogatis(1977)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바탕으로 한양대 신경정신과 연구팀에 의해 제작된 표준화 도구 SCL-90-R(Symptom Checklist-90-Revision) 가운데 일반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를 평가하는데 적용시킬 수 있는 문항들을 추출한 것이다(Cronbach  $\alpha = .89$ ). 대리양육만족 측정 문항은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6문항으로 이루어진 자작도구이다

(Cronbach  $\alpha = .85$ ). 이들 심리적 특성 척도들은 모두 5점 리커트식 도구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변수들의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 4) 부모역할만족도 측정을 위한 척도 구성

부모역할만족도 척도는 현운강·조복희(1994)에 의해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진 부모역할만족도 척도의 하위 영역인 일반적인 만족도 11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식 도구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Cronbach  $\alpha = .90$ ).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빈도, 평균, 표준편차), 집단간의 평균 차를 파악하는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 및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이 사후검증으로 적용되었으며, 변인들간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와 위계적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 IV. 결과해석 및 논의

### 1. 일하는 어머니의 특성

#### 1) 개인/가족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일하는 어머니 303명으로 대부분 30대였고(71.9%), 대졸이상(46.3%)과 고졸이하(44.9%)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가족형태는 핵가족(78.1%)이 대부분이었으며, 결혼지속년수는 5년에서 10년 사이가 56.4%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가계수입은 329만원(SD=154.4)이었으며 최저 7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로 그 차이가 컸고, 자녀수는 2명이상인 경우가 61.9%로 나타났다. 대상자녀의 평균연령은 5.3세(SD=1.9)였으며, 성별분포는 비슷하였고 출생순위에서는 첫째아(61.3%)가 둘째이하보다 많았다(표 1).

#### 2) 직업특성

어머니의 직업특성을 살펴보면, 직업유형, 근무기

〈표 1〉 연구 대상자의 개인/가족 특성

(N = 303)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어머니 연령	20대	53(17.5)	아버지 연령	20대	19( 6.3)
	30대	251(76.2)		30대	219(72.3)
	40대	19( 6.3)		40대	65(21.5)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이하	123(44.9)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이하	75(27.8)
	대졸이상	151(55.1)		대졸이상	195(72.2)
가족형태	핵가족	232(78.1)	결혼 지속 년수	5년이하	59(19.5)
	확대가족	65(21.9)		5-10년	171(56.4)
월평균 가계수입	199만원이하	79(26.1)		자녀수	1명
	200-299만원	75(24.8)	2명		171(58.2)
	300-399만원	63(20.8)	3명이상		11( 3.7)
	400만원이상	86(28.4)	자녀 연령	3세이하	59(19.5)
자녀의 성별	남	123(50.6)		4-6세	164(54.1)
	여	120(49.4)		7세이상	80(26.4)
출생순위	첫째	179(61.3)			
	둘째이하	113(38.7)			

간, 근무시간, 월평균 수입은 고르게 분포되어있으며, 경제적 여유(39.8%)나 능력발휘·자아실현(39.9%)의 동기를 가지고 취업을 선호하여 일을 하고 있었고(83.1%), 결혼전부터 직업을 계속 지속한 경우와 자녀 출산 후 취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81.2%). 이러한 결과는 취업의 이유가 자아실현, 능력개발등의 심리적 측면이거나 소득증대 등의 경제적 측면이든 간에 기혼여성의 취업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을 위탁기관을 통해 하는 경우(48.2%)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등 혈연자에 의한 경우(32.2%) 보다 많았으며, 연구대상자의 81.2%가 직장생활을 하므로써 어려운 점을 자녀양육과 교육이라고 지적하여 직장과 가정 생활의 병행으로 인해 많은 곤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표 2).

한편, 취업모는 직업만족도와 직업의 융통성에 대해 중간 정도 수준의 만족을 나타냈다(표 3).

### 3) 심리적 특성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대리양육과 남편의 지지에

대해 비교적「만족」을 나타냈으며, 어머니됨에 대한 인식과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등 어머니로서의 역량과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중역할에 따른 갈등은 중간정도,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는 낮게 지각하였다(표 3).

### 4) 부모역할만족

일하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은 5점척도에서 4.4로 「만족」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는 어머니와 자녀 관계는 본능적 요소가 있어 양육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만족을 지닐 것이라는 추정(조복희, 현은강, 1994)이 증명된 셈이며 일하는 어머니들이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과 부모역할로 인해 다소 어려움을 겪으나 부모역할에 만족하는 것을 나타낸다.

## 2. 직업특성과 부모역할만족도

### 1) 개인/가족특성과 부모역할만족도

일하는 어머니의 개인/가족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표 2〉 연구대상자의 직업특성

(N = 303)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직업	전문직	101(43.4)	근무 기간	12개월이하	76(25.1)
	관리 사무직	72(25.5)		13-36개월	51(16.8)
	판매/서비스직	90(30.6)		37-60개월	34(11.2)
	생산직	31(10.5)		61개월이상	142(46.9)
근무 시간	43시간이하	88(33.3)	취업 선호	예	351(83.1)
	44-54시간	118(44.7)		아니오	50(16.6)
	55시간이상	58(22.0)	A 가계수입	1/3이하	101(33.3)
월평균 수입 (A)	100만원미만	109(36.0)		1/3-1/2	163(53.8)
	100-149만원	70(23.1)		1/2이상	39(12.9)
	150-199만원	51(16.8)		대리 양육자	없다(어머니)
	200만원이상	73(24.1)	혈연		97(32.3)
취업 시작 시기	결혼전부터	105(39.8)	비혈연		22( 7.3)
	결혼후부터	19(7.2)	위탁기관		145(48.2)
	결혼후중단, 다시나감	14(5.3)	직장 생활의 어려운 점		가사일
	출산후중단, 다시나감	15(5.7)		본인·가족건강	14( 4.8)
	출산후부터	109(41.3)		자녀양육과 교육	237(81.2)
기타	2( 0.8)	남편·가족의 이해		11( 3.8)	
취업 동기	경제적여유	96(40.3)	직장 생활의 어려운 점	가사일	30(10.3)
	능력발휘·자아실현	95(39.9)		본인·가족건강	14( 4.8)
	일이 좋아서	44(18.5)		자녀양육과 교육	237(81.2)
	기타	3( 1.3)		남편·가족의 이해	11( 3.8)

〈표 3〉 연구대상자의 직업 및 심리적특성과 부모역할만족

(N = 303)

특성	평균	표준편차
직업만족도	3.41	.81
직업응통성	3.06	.97
이중역할갈등	2.86	.72
어머니의 역량	3.24	.46
남편의 지지	3.69	.89
심리적 스트레스	2.26	.72
대리양육만족	3.92	.29
부모역할만족도	4.41	.51

만족의 차이에서 30대인 경우보다는 20대나 40대인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이 높았으며, 핵가족보다는 확대가족의 경우에, 자녀수가 1명인 경우, 월평균가계 수입이 200만원대인 어머니,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보다 많고, 남아이며, 첫째아인 어머니가 다른 집단의 어머니보다 부모역할만족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4). 이 결과는 부모관련 변수에 따른 부모역할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일련의 국내연구와 같은 결과다(강희경, 1994; 조복희·현은강, 1994). 이와 같이 대상자의 개인/가족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부모역할만족이 심리적인 평가로서, 개인의 일반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기 보다는 인성 및 심리적 특성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2) 취업특성과 부모역할만족

직업특성 변인에 따른 부모역할만족을 살펴본 결과, 근무시간, 취업선호, 월평균수입, 어머니의 수입이 가계수입에서 차지하는 정도, 직장생활의 어려운

〈표 4〉 어머니의 개인/가족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

변인	구분	N	Mean(SD)	F(t)값	변인	구분	N	Mean(SD)	F(t)값
연령	20대	53	4.45(.52)	0.81 (n.s)	교육 수준	고졸이하	123	4.43(.48)	0.32 (n.s)
	30대	251	3.40(.52)			대졸이상	151	4.40(.55)	
	40대	19	4.55(.50)						
결혼 지속 년수	5년이하	59	4.42(.53)	0.19 (n.s)	가족 형태	핵가족	232	4.39(.49)	2.56 (n.s)
	5-10년	171	4.42(.51)			확대가족	65	4.50(.48)	
	10년이상	73	4.38(.50)		자녀수	1명	112	4.45(.52)	1.35 (n.s)
	2명이상	182	4.38(.51)						
월평균 가계 수입	199만원이하	79	4.33(.46)	1.45 (n.s)	자녀 연령	3세이하	59	4.38(.62)	0.15 (n.s)
	200-299만원	75	4.51(.46)			3세-6세	164	4.41(.49)	
	300-399만원	63	4.40(.52)			7세이상	80	4.43(.48)	
	400만원이상	86	4.41(.59)						
자녀의 성별	남	123	4.43(.49)	0.90 (n.s)	출생 순위	첫째	179	4.44(.49)	1.09 (n.s)
	여	65	4.37(.49)			둘째이하	113	4.37(.55)	

n.s=not significant

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5). 근무시간이 43시간 이하인 집단과 월평균수입이 200만원 이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의 어머니보다 부모역할만족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직업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 대부분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직업에 종사하는 시간은 다른 직업의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나 이들은 가정생활보다는 사회생활에의 몰입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부모역할에 덜 만족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으로 근무시간이 길수록 시간적 제한으로 부모역할에 불만이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나 근무시간 자체가 만족에 차이를 야기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어머니의 월평균수입이 가계수입의 1/3에서 1/2인 집단이 그 이하나 그 이상의 집단보다 부모역할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을 선호하여 취업한 경우 부모역할만족이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직장생활의 어려운 점으로 남편과 가족의 이해를 지적한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자체가 만족도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의 자발성이 중요하며 원하는 직업을 가진 어머니가 부모역할에 보다 만족하고, 남편이나 가족의 지지가

취업에 따른 부모역할 수행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한다.

한편, 직업만족도와 직업융통성은 일하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r=.17, p<.01$ ;  $r=.22, p<.01$ ). 이는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경우 자신의 생활과 부모로서의 역할에 덜 불안해하고, 유연하게 근무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취업으로 인한 역할갈등이 적어 부모역할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 3) 심리적 특성과 부모역할만족

일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부모역할만족과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표 6). 이러한 결과는 일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부모역할만족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자신감을 갖고 남편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대리양육에 만족하는 어머니일수록 부모역할에 보다 만족하며, 직업적 역할과 가정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역할에 대한 갈등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을수록 부모역할에 덜 만족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대리양육의 경우 위탁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48.2%로



〈표 5〉 직업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

변인	구분	N	Mean(SD)	F(t)값	변인	구분	N	Mean(SD)	F(t)값
직업	전문직	101	4.39(.52)	0.44 (n.s)	근무 기간	12개월이하	76	4.31(.42)	1.01 (n.s)
	관리 사무직	72	4.42(.52)			13-36개월	51	4.41(.49)	
	판매/서비스직	90	4.42(.55)			37-60개월	34	4.47(.56)	
	생산직	31	4.52(.36)			61개월이상	142	4.44(.55)	
근무 시간	43시간이하	88	4.33(.54)b	4.32*	취업 선호	예	251	4.34(.52)	4.18*
	44-54시간	118	4.52(.48)a			아니오	50	4.27(.48)	
	55시간이상	58	4.51(.45)a						
월평균 수입 (A)	100만원미만	109	4.40(.46)a	2.57*	A 가계 수입	1/3이하	101	4.31(.48)b	6.80***
	100-149만원	70	4.51(.49)a			1/3-1/2	163	4.50(.45)a	
	150-199만원	51	4.45(.48)a			1/2이상	39	4.20(.77)b	
	200만원이상	73	4.33(.62)b						
취업 시작 시기	결혼전부터	195	4.42(.58)	1.47 (n.s)	대리 양육자	없다(어머니)	37	4.40(.49)	0.52 (n.s)
	결혼후부터	19	4.52(.52)			혈연	97	4.44(.51)	
	결혼후중단, 다시	14	4.64(.33)			비혈연	22	4.50(.46)	
	출산후중단, 다시	15	4.57(.44)			위탁기관	145	4.38(.53)	
	출산후부터	109	4.36(.50)						
취업 동기	경제적 여유	96	4.46(.46)	0.49 (n.s)	직장 생활의 어려운점	가사일	30	4.42(.49)a	3.77* (n.s)
	능력및자아실현	95	4.49(.50)			본인, 가족건강	14	4.49(.50)a	
	일이 좋아서	44	4.39(.53)			자녀양육, 교육	237	4.43(.51)a	
						남편, 가족의 이해	11	4.08(.58)a	

n.s=not significant \* p < .05 \*\*\* p < .001

〈표 6〉 심리적 특성과 부모역할만족간의 상관계수

(N = 303)

변인	부모역할만족
이중역할갈등	-.33***
어머니역량	.31***
심리적스트레스	-.25***
남편의 지지	.31***
대리양육만족	.21**

\*\* p < .01 \*\*\* p < .001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척 등의 혈연에 의한 경우보다 많았고, 대리양육에 대한 만족이 부모역할만족과 관련된 결과를 고려할 때, 보육기관의 양적 질적 향상과 함께 일하는 어머니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운영방안이 요구된다.

### 3. 취업특성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만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특성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취업특성을 개인/가족특성, 직업특성, 심리적특성으로 구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의하면, 일하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들은 심리적 특성 변인군으로 다른 독립변인군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23%의 변량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으며(R<sup>2</sup>=.233), 개인/가족특성 변인군이 5%의 변량을, 취업특성 변인군이 10%의 변량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변인의 독립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부모역할에 역량이 있다고 지각하고(β=.29), 이중역할갈등이 적을수록(β=-.26), 직업용통성이 높고(β=.23) 결

〈표 7〉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한 위계적회귀분석

변인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개인/가족특성 변인군		취업특성 변인군		심리적특성 변인군	
	b	$\beta$	b	$\beta$	b	$\beta$
결혼지속년수	-.00	-.23**	-.00	-.27**	-.00	-.22*
가족형태(확대가족=1)	.16	.13*	.17	.14*	.20	.16*
자녀수	.02	.21*	.03	.25*	.02	.14
근무기간			.00	-.05	.00	.16*
근무시간			.00	.09	.00	.04
취업선호(선호=1)			.31	.20**	.15	.09
직업융통성			.12	.24***	.12	.23**
월평균수입			-.00	-.08	-.00	-.19*
이중역할갈등					-.19	-.26***
어머니역량					.32	.29***
심리적스트레스					-.07	-.18*
남편의 지지					.09	.15*
대리양육만족					.23	.12
Intercept	3.7844		2.9629		1.2675	
R <sup>2</sup>	0.0498**		0.1491***		0.3725***	
R <sup>2</sup> 증가량			0.1093***		0.2334***	

\*  $p < .05$  \*\*  $p < .01$  \*\*\*  $p < .001$ 

혼지속년수가 적으며( $\beta = -.22$ ), 월평균수입이 적고( $\beta = -.19$ ), 심리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beta = -.18$ ) 또한 가족형태가 확대가족이며( $\beta = .16$ ), 근무기간이 짧고( $\beta = .16$ ) 남편의 지지가 높을수록( $\beta = .15$ )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았으며 이중 어머니의 역량과 이중역할갈등이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다. 한편 모델 II에서 의미있게 나타난 취업선호와 자녀수는 심리적 특성을 통제할 경우 그 효과가 사라졌다. 따라서 일하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에는 심리적 특성이 보다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하는 어머니가 갖고 있는 개인/가족특성이나 직업특성보다는 심리적 특성이 부모역할만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며, 이중에서도 어머니 역량과 이중역할갈등, 심리적 스트레스, 남편의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나타낸다.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들은 직장에서의 역할 뿐 아니라 가사 및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는데 이때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부모됨에 대한 인식과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이 부모역할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부모됨의 의의와 실질적인 자녀양육방법, 긍정적인 양육태도, 효과적인 부모역할 등 다양한 방식의 부모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또한 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에는 남편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가사 노동이나, 자녀양육, 가족행사들에 역할 분담 등을 통해 보다 많이 참여하고, 심리적으로 직장인인 부인의 역할을 인정하므로써 부인의 이중역할갈등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낮추고 부모역할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됨과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남편 모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함으로써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므로써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근무기간이 길고 직업융통성이 높을수록 부

모역할만족이 높았다. 이는 오랜 시간의 직장 경험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대안과 방법들을 습득한 결과라 인식되며, 확대가족의 경우 부모역할만족이 높은 것은 어머니 자신 이외에 양육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족원이 있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일하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를 파악하고 취업모의 개인/가족특성, 직업특성 및 심리적 특성 등의 취업특성이 부모역할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10세이하 자녀를 둔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하는 어머니의 개인/가족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직업특성 변인 중에서는 근무시간이 43시간 이하인 집단과 월평균수입이 200만원 이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의 어머니보다 부모역할만족이 낮게 나타났으며, 취업을 선호하여 취업하고, 직업에 만족하며 직업의 융통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부모역할만족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직장생활의 어려운 점으로 남편과 가족의 이해를 지적한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특성과 부모역할만족에서는 어머니 역할에 대한 역량 및 남편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대리양육에 만족할수록 부모역할만족이 높았으며, 이중역할갈등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부모역할만족이 낮았다.

일하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특성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취업특성을 개인/가족특성, 직업특성, 심리적특성으로 구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특성 변인군이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부모역할에 역량이 있다고 지각하고, 이중역할갈등이 적을수록, 직업융통성이 높고, 결혼지속년수가 적으며, 월평균수입이 적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또한 가족형태가 확대가족이며, 근무기간이 짧고

남편의 지지가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았다.

본 연구는 표집지역분포가 한정되어 있으며, 유아기 및 아동기에 있는 일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모든 일하는 어머니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일하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이 개인/가족특성이나 직업특성보다는 심리적 특성에 의해 설명됨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하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이 부모됨과 부모역할에 대한 역량 지각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및 곧 부모가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모됨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형성하도록 돕는 다양한 방식의 부모교육 실시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1) 강희경(1994).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20대 출산모와 고령출산모의 비교-. 경희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2) 박성옥(1993).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격리불안. 경희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3) 박성옥·김정훈(1995). 취업모의 가정생활과 일의 균형을 위한 방안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3(4), 13-25.
- 4) 박성옥·양연숙·곽혜경(1996). 취업모의 격리불안, 이중역할긴장 및 생활만족도. 생활과학연구(대전대학교), 제2집, 169-182.
- 5) 박성미(1991). 탁아경험이 어머니의 역할, 부부관계 및 직업만족도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6) 변자영(1996). 취업주부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역할갈등과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7) 안선영(1987).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갈등과 관련변인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8)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 9) 원정선(1990). 부모됨의 전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10) 유영주·서동인·전영자·홍숙자·이정연·오윤자·이인수(1995). 결혼과 가족.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 11) 이연숙·이순형·유가효·조재순(1991). 기혼 취업 여성이 지각하는 가정·직업 생활 갈등 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3.
- 12) 이혜란(1984). 부모역할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 및 만족도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13) 장경미(1995). 취업모의 취업경험과 자녀의 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14) 정혜정(1985).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15) 조복희·현은강(1994). 한국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5), 97-108.
- 16) 한국여성개발원(1986). 아동보육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17) 현은강(1994).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18) 현은강·조복희(1994).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2(1), 103-115.
- 19) Chilman, C. S.(1980). Parent satisfactions, concerns, and goals for their children. *Family Relations*, 29, 339-345.
- 20) Cleminshaws, H. K., & Guidubaldi, J.(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leminshaw-Guidubaldi parent-satisfaction scale. In M. J. Fine(Ed.),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Contemporary Perspectives*(pp 257-277). San Diego: Academic Hall.
- 21) DeMeis, D. Hock, E., & McBride, S. L.(1988). The balance of employment and motherhood: A longitudinal study of mothers' feelings about separation from their first born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22, 627-632.
- 22) Goetting, A.(1986). Parental satisfaction -A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Family Issues*, 7(1), 83-109.
- 23) Hamner, T. J., & Turner, P. T.(1990).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2nd ed.). N.J.: Prentice Hall.
- 24) Hobbs, D. F. Jr., Wimbish, J. M.(1977). Transition to parenthood by black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677-689.
- 25) Keith, P. M. & Schafer, R. B. (1983).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both spouses and depression in two-job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877-884.
- 26) LeMaster, E. E.(1957). Parenthood as crisis. *Marriage and Family Living*, 19, 352-355.
- 27) Miller, B. C.(1976). A Multivariate development model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643-655.)
- 28) Moen, P. & Dempster-McClain, D. I. (1987). Employed parents: Role strain, work time, and preferences for working l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579-590.
- 29) Ragozin, A. S., Basham, R. B., Crnic, K. A., Greenberg, M. T., & Robinson, N. M.(1982). Effect of Maternal Age on Parenting Role. *Development Psychology*, 18(4), 627-634.
- 30) Russell, C. S.(1974). Transition to parenthood: problem and gratific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263-276.
- 31) Steffensmeir, R. H.(1982). A Role Model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319-334.
- 32) Voydanoff, P., & Kelly, R. F.(1984). Determinants of work-related family problems among employe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881-982.